

A Tempo

국어 1회

전현근 | 김명수 | 남은식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호 이익은 올바른 독서의 자세에 대하여 세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이야기 한다. 세가지 마음가짐이란 반복 독서, 질문 독서, 실천 독서를 뜻한다.

반복 독서란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바야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 독서를 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방법이다. 다만 무작정 책만 읽는다면 그것은 백 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익이 말하는 반복 독서란 책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독서의 자세이다.

그는 책을 여러번 읽어도 뜻은 잘 모르고 무조건 외우면서 읽기만 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다. 질문독서란 눈으로만 읽지 말고 생각하며 읽어야함을 뜻한다. 책을 읽을 때는 뜻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책에 질문을 던지며 읽어야 한다. 또한 책을 읽을 때 잘못 쓰여진 글자를 읽어 착사오독(錯寫誤讀)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말한다. 잘못 써진 책과 잘못 기록되어 전해진 책들이 많으니 독서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이며 독서는 ㉠실질적인 학문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시험을 위해 학문을 배우기만 하고 막상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실질적인 사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학문은 쓸모가 없으며,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학문을 위한 올바른 독서의 자세에 대해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올바른 독서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올바른 독서란 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 ③ 올바른 독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을 여러번 읽어야 한다.
- ④ 올바른 독서란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 ⑤ 올바른 독서를 위해서는 실제 세상과 독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윗글을 읽고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학에서 의학 지식을 학습하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고전을 읽고 고대 철학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책을 읽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공장에서 생산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전공 서적을 통해 컴퓨터 코딩 기술을 배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서를 연구함은 장차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이다. 경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천하의 온갖 일에 아무 쓸모가 없이 되면 이는 뜻은 잘 모르고 한갓 읽기만 잘한다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시험하여 본 바, 한 권의 경서를 읽는데 단(段)이 있다면, 먼저 10단을 읽어 통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다시 읽어 세 번 네 번에 이르러도 오히려 통하지 못해야만 비로소 제1단을 읽되 전과 같이 하고, 다시 3단, 4단으로부터 10단까지 이르도록 전과 같이 읽은 다음, 다시 제1단을 읽되 전과 같이 하여 10번, 20번에 이르면 반드시 통할 수가 있다.

그런데 후세의 학자들은 시를 읽는 데 오로지 외기만 하고, 예를 행하는 데도 오로지 겸손하기만 해서, 국가의 정사를 물으면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 옳다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은 경술(經術)과 사무(事務)가 갈라져 두 갈래로 직책이 바뀌면 그만 껌껌해서 모르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이익, 「성호사설」 -

- ① 경서가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인 것에서 실천 독서의 중요성 강조한다.
- ② '시를 읽는 데 오로지 외기만 하고, 예를 행하는 데도 오로지 겸손'을 통해 이익이 후세의 학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10번, 20번에 이르면 반드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에서 반복 독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가'의 정사를 물으면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으니'에서 질문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 ⑤ '두 갈래로 직책이 바뀌면 그만 껌껌해서 모르게 된다.'에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학문을 위한 독서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는 아름다운 것을 판정하는 마음의 능력을 '취미'라 부른다. 어떤 대상에 의해 촉발된 취미가 작동할 때 느끼는 쾌감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모든 대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칸트는 취미가 제대로 작동하여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의 그 심적 상태를 '무관심적'이라고 규정한다. 이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취미판단은 지성개념에 따르는 과학적 인식판단이 아니며 우리의 감각적 쾌락과 도덕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관적 판단이다.

칸트에게서 취미는 더 이상 기존 경험론자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히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적 기관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칸트의 취미판단은 지성적 인식 활동과 유사하게 지성과 상상력이 유희하며 조화에 도달하는 활동이되, 그 무관심성으로 인해 그것들이 '자유롭게' 유희하는 활동이다. 즉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사리사욕에서 기인한 것이든 완전성의 이성이념을 향한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든 다른 어떤 목적추구를 의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대상의 합목적성을 취미를 통해 가지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 합목적성이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성과 상상력,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균형과 조화를 생동적으로 유지하는 느낌이다. 이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인간 일반에게 가능한 상태이다. 즉 근대미학에서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개별 주체가 대상을 무관심적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 가지는 인식능력들이 자유롭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갖는 '평정과 고요'의 쾌감이다.

(나)

뤽 페리는 이원론적 철학을 일원론적 미학으로 전회시키므로써 형이상학의 오랜 역사에 종언을 고한 니체의 사상사적 위치를 그로부터 '미학이 시작되다'라는 말로 알린다. 니체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대상이 ㉢갖고 있다고 하는 비례나 명료함 따위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어떤 대상이 촉발한 주관에 갖는 감정을 지칭하며, 보편적 이성능력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개별적 능력이 주관하는 경험으로 탐구된다.

근대미학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칸트는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으로서 취미를 이성과 사유에서 독립적인 원리를 지닌 주관적 속성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칸트는 취미가 제대로 작동하여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의 그 심적 상태를 '무관심적'이라고 규정한다. 즉 근대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별적 사물에 대한 개별적 주관의 특수한 경험으로

서 접근하게 됨으로써 주관의 자율성 문제에 대한 탐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그러나 니체에 따르면, 미적 경험의 핵심조건을 무관심성으로 제시하는 칸트의 오류는 우선 ㉣미적인 것을 창작자가 아니라 감상자의 관점에서 고찰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미적 경험에 있어서도 '무관심성'이라는 상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적 경험은 각종 욕구와 충동, 도덕법칙이나 감각적 자극 등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며 몰아가는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진다. 즉 니체에게 있어서는 미적 경험은 무관심적으로 관조하는 감상자가 아니라 창작하는 예술가의 관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감상자적 측면에서라도 미적 경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 삶과 분리된 ㉥순수한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적 경험은 좁은 의미의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가)에서 알 수 있는 칸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취미는 대상을 지각하는 능력이다.
- ②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를 전제로 한다.
- ③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감상자는 무관심적이다.
- ④ 취미판단은 감상자의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도 제대로 작동한다.
- ⑤ 취미판단은 과학적 인식판단과 감각적 쾌락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5. ㉥순수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적 인식판단이 전제되는 곳이다.
- ② 대상을 무관심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 ③ 삶의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④ 막연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이다.
- ⑤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는 곳이다.

6. ㉠에 대한 ‘니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인 것에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 ② 미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한다.
- ③ 길에 버려진 쓰레기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미적일 수 있다.
- ④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은 누구에게나 미적일 것이다.
- ⑤ 나치의 스페인 마을 폭격을 그린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내가 느낄 수 없지만 분명 미적일 것이다.

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적’ 경험이 되, 우리의 특정한 심적 상태인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경험이다. 하지만 조화롭고 평온한 쾌감의 ‘아름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다른 미적 경험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불쾌와 쾌가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감정인 ‘숭고’이다. 숭고는 미적 개념이 주관화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미처 포섭할 수 없는 미적 경험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재조명되었다. 즉 숭고는 가령 거친 풍랑의 바다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산 등 공포의 고통을 주는 대상을 우리가 안위를 확보하는 거리에서 관찰할 때 가지는 쾌감이다. 이때 숭고한 것이 단순히 공포스러운 것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그 공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거리의 확보에 있다.

- ① (가)의 칸트는 <보기>의 ‘숭고’를 언제나 아름답다고 판단하겠군.
- ② (나)의 니체는 <보기>가 (가)의 칸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겠군.
- ③ (가)와 (나)에서 <보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하는군.
- ④ (나)의 니체는 <보기>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겠군.
- ⑤ <보기>와 (가)의 칸트는 아름다움은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겠군.

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피보나치 수열’이란 수학에서 첫 번째 항의 값이 0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이 1일 때, 이후의 항들은 이전의 두 항을 더한 값으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합,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합이 되는 것과 같이, 인접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예를 들어 0, 1, 1, 2, 3, 5, 8, 13, 21, 34, 55, ... 인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_0 = 0, F_1 = 1, F_{n+2} = F_{n+1} + F_n$$

(단, 여기서 F_n 을 수열 F 의 n 번째 항을 의미한다.)

인접한 두 항은 ‘황금분할의 비’로, 자연계에서 많은 생물의 구조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예를 들어, 솔방울을 살펴보면 비늘 같은 조각이 오른쪽나선과 왼쪽나선을 이루며 교차하고 있는데, 그 나선의 수는 각각 8개와 5개로 되어 있다. 5와 8은 피보나치수열에서 서로 이웃하는 항이다. 이 밖에도 식물 중에는 꽃잎의 배열이 13:8 또는 34:21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① <보기>에 제시된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면 13:34의 배열을 가진 꽃잎은 ‘황금분할의 비’가 아니겠군.
- ② (가)의 칸트에 따르면, <보기>의 ‘피보나치 수열’은 지성 개념에 따르는 ‘과학적 인식판단’이므로, 취미판단으로 볼 수 없겠군.
- ③ (가)의 칸트와 (나)의 니체 모두 <보기>의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분할의 비’ 자체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겠군.
- ④ (나)의 니체에 따르면, 솔방울의 오른쪽나선과 왼쪽나선의 수가 ‘황금분할의 비’를 따르기 때문에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니체에 따르면, <보기>의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계에서 ‘황금분할의 비’로 나타나는 것은 ‘삶의 차원’에서의 미적 경험이 될 수 있겠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판단할
- ② ㉡: 작동하지
- ③ ㉢: 지니고
- ④ ㉣: 비롯한
- ⑤ ㉤: 성립되는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세기 말, 새로운 금융중계 시스템으로서 그림자은행이 등장하였다. 그림자은행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그림자은행의 출현과 발전의 원인을 둘러싸고, ㉠급진 경제학은 그것이 금융 부문의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류 경제학은 ‘안전자산’의 부족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포스트 케인스주의를 비롯한 급진 경제학은 그림자은행은 금융기업이 고수익·고위험의 투자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금융혁신을 일으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림자은행은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신용을 증대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악탈적 본성’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림자은행은 공적 규제를 통해 억압해야 하는 일탈로서 나타난다.

IMF 중심의 주류 경제학은 금융 시스템에서의 ‘안전자산(safe assets)의 부족’을 강조한다. 중앙은행권, 예금, 국채 등의 안전자산은 금융시스템에 큰 문제가 ①발생해도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 기대되는 부채수단으로 원활한 상품·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경제의 초석이다. 통화 없는 상품거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안전자산이 부족하면 상품·금융 거래가 크게 제약받게 된다. 안전자산은 자산총액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1990년대 말부터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전세계적 금융 불균형’으로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했고, 또 기관의 현금 보유액이 수십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은행당 10만 달러까지 보호되는 예금이 안전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국채와 예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을 생산한 것이 그림자은행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자은행은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변화된 경제적 환경에서 안전자산을 공급하는 일종의 금융 혁신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림자은행은 왜 안전자산을 생산할까? 금융기업의 이윤율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중계에서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이윤율을 일방적으로 높일 수 없다. 금융기관이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안전자산을 충분히 생산해야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주가에 반영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자은행은 단순히 규제 회피나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업이 법인 저축자의 성장과 금융 부문의 수익률 하락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림

자은행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지만, 법인 저축자의 금융적 축적이 지속되는 한, 다소 변형된 형태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그림자은행’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적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이다.
- ②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 ③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 ④ 전세계적 금융 불균형에서 안전자산을 생산한다.
- ⑤ 금융기업의 규제 회피와 고수익 투자를 위해 이용된다.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림자은행이 국가의 규제를 회피한다고 본다.
- ② ㉡에 따르면 그림자은행은 안전자산을 공급한다.
- ③ ㉠과 ㉡ 모두 그림자은행을 금융혁신으로 본다.
- ④ ㉡은 ㉠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공적 규제를 강조한다.
- ⑤ ㉡은 ㉠과 달리 그림자은행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적응이라고 본다.

12.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 ② 금융기관의 이윤율이 낮다면 그림자은행이 장기 안전자산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아 주가는 낮아진다.
- ③ 장기 안전자산이 충분히 생산되면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적어진다.
- ④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낮아지면 장기 안전자산은 줄어든다.
- ⑤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이윤율은 낮아진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통적인 장기 안전자산은 A국 국채이다. 그런데 A국 국채는 시장 수요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는데, A국의 국채는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B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정부가 준비자산을 대폭 확충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였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A국의 국채는 2002년 5000억 달러에서 2007년 1조 6000억 달러로 3.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급증하면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충분한 안전자산을 매입할 수 없고, 자칫 금융중계 순환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 ① A국의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 ② 외환위기는 A국 국채의 수익률 하락을 야기했을 것이다.
- ③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A국은 그림자은행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④ 국채 이외의 안전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국의 상품 거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⑤ 국채 이외의 안전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B국 금융기관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위험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1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기되도
- ② 생겨도
- ③ 일어나도
- ④ 시작되도
- ⑤ 재발해도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진이란 지진파가 지구 지각의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지각의 흔들림을 말한다. 지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 지진은 지하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으로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겨 그 힘으로 생긴 파동이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이 진동하게 된다. 인공 지진은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로 지반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지진은 발생한 사례에 따라 진동조차 느끼기 힘든 약한 지진부터, 자전축을 뒤흔들 만큼 아주 강력한 지진까지 매우 다양하다.

암석은 힘을 받았을 때 그 반응으로 보통 두 가지 유동학적인 움직임을 갖는다. 하나는 ㉠연성 변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취성 변형이다. 보통 연성 변형은 온도와 압력이 높아야 선호되므로 보통 생각하는 지표의 암석은 취성 변형을 선호한다. 즉, 힘을 가했을 때 암석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등, 단단하게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 취성 변형의 결과이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암석은 높은 압력과 열 때문에 연성 변형을 선호하며, 따라서 취성 변형을 일으키는 암석은 지구 겉 부분 수십 킬로미터에 분포하며 간혹 수백 킬로미터 구간까지 포함된다.

암석이 취성 변형을 선호할 때, 강력한 힘이 가해지면 암석은 부서지게 된다. 그렇지만 지하는 암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빈 곳을 만들 수 없으므로, 지하의 암석은 구부러지거나 절단면 즉, 단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힘이 가해진 암석이 절단면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절단면이 다시 움직일 때 파동 에너지가 만들어져 사방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이 지진이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진다. 이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인 진도를 조사해 보면 변위가 생긴 땅속 바로 위의 지표, 즉 진앙에서 흔들림이 가장 세고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약하게 되어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흔들림이 가장 큰 장소 부근의 땅속에서 어떤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그것에 의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해져 여러 지역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종을 쳤을 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음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규모가 큰 강진이 일어나거나 연약 지반, 간척지, 해안 지역 또는 지하수 등 수맥이 지나가는 진앙 부근에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액상화 현상이란 지반이 액체 상태처럼 되는 것인데, 특히 수분을 다수 머금고 있는 토양이나 지하수가 풍부한 지층의 경우 지진 시 그 수압이 급격히 높아져 흙탕물이 분출하게 되며, 물에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지반은 상대적으로 침하한다. 액상화는 지진성 재난 중 가장 무서운 현상이다. 진앙 부근의 땅이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여 지층이 이동하며, 수직적 진동을 일으켜 건물, 도로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초토화한다. 특히 지하 매설된 수도관, 가스관, 송전선, 통신망 같은 공급시설이 파괴되기 쉽다. 일본에서 전선을 매립하지 않고 전봇대와 송전탑을 땅 위에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액상화 현상 때문이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도 있다.
- ② 지진의 진도는 진앙에서 가장 크다.
- ③ 지진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 ④ 절단면이 움직여 발생하는 파동 에너지는 지구 내부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 ⑤ 지진의 피해 규모는 지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표에서는 주로 ㉠이 발생한다.
- ②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도 암석은 ㉠을 선호할 것이다.
- ③ 지구 내부에서는 ㉠에 비해 ㉡이 더 자주 발생한다.
- ④ 암석이 부서지는 것은 ㉡의 결과이다.
- ⑤ ㉠은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17. 액상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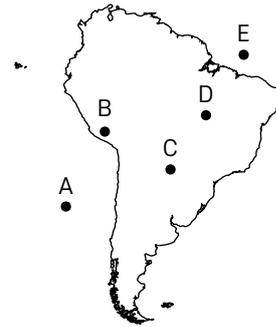
- ① 지층이 약할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다.
- ② 지반의 수압을 상승시켜 지반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
- ③ 액상화 현상은 진앙 근처에서 발생한다.
- ④ 지진이 호발하는 지역에서는 수도관을 매립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⑤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건물이 위아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상진역’은 지진파의 전달거리와 진도가 비례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다. 일부 지진의 경우, 진앙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보다 더 높은 수치의 진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앙의 땅 속 지표인 진원이 깊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구의 내부구조 중 최상부의 지각 바로 밑에 있는 맨틀에는 지진파가 감쇠되기 쉬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감쇠되지 않는 부분을 지나온 지진파가 강력한 지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연약 지반을 통과할 때의 상대적 증폭과 지진파 전달 경로상의 특이점에 따른 진동 감쇄 효과의 약화도 이상진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도표는 해안에 위치한 진원 A와 E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각각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도시 B, C, D에 미칠 수 있는 예상 피해를 조사한 것이다.



도시	B	C	D
A와의 거리	329km	350km	647km
E와의 거리	559km	510km	281km
예상 진도	M 4.5	M 5.0	M 7.9
예상 피해액	108억 원	39억 원	220억 원

(단, M은 진도의 단위를 뜻하며, 도시 B는 해안에, 도시 C와 D는 내륙에 위치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각 도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예상 진도와 피해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① B가 연약 지반에 위치한다면 A에서 발생한 지진의 지진 파는 B를 거치면서 증폭할 것이다.
- ② C의 예상 진도가 B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예상 피해액이 적은 것은 해양도시인 B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진앙에 상관없이 D지역 사람들과 B지역 사람들은 비슷한 시간에 지진을 느낄 것이다.
- ④ 진앙이 모두 D와 더 가까워진다면 D의 예상 진도는 높아질 것이다.
- ⑤ 진앙 A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더 강해진다면 C의 예상 진도는 D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낙네들은 버섯 철이 지나자 인젠 뗏도라지나 캐고, 그렇지 않으면 콩잎 따기가 일이었다. 그것도 자기 산 없고, 자기 밭 적은 그들은 옥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 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서는 갑자기 간평(看坪)*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 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에서 셋 - 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논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든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밖에 죄인처럼 쭈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키었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서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략)

“아이고, 어느 도둑놈이 그 벼를 베어 갔을까? 생벼락을 맞아 죽을 놈! 그 벼를 먹고 제가 살 줄 알아…… 창자가 터질꺼여 터져!”

하며 봉구 어머니가 몽당치마 바람으로 이 골목 저 골목 외고 다니고, 호세 징수를 나온 면서기가 그녀를 찾아다니던 날, 성동리에서는 구장 이외 고 서방, 들깨, 또쥔이 들 사오인이 대표가 되어 보광사 농사 조합으로 나갔다.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어 쓴 소위 저리자금(低利資金)의 - 대부분은 비료 대금이지만 - 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석에 대해서 너 되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은 갚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이사(理事)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일랑 귀 밖으로, 한참 ‘씨끼시마*’ 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치 않은 눈은 부치지 않은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두 인젠 그런 우는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티어들 보시구려!”

“누가 어디 조합 돈은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쥔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 보시오. 난 이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이 노기를 띄우더니, 그들 틈에 끼여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는,

“고 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 다 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밑 고 서방의 눈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에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이 불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 피땀을 흘려 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인젠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 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중일 고 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이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쥔이, 들깨, 철한이, 봉구 -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 김정환, 「사하촌」 -

*간평 : 일반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작황(作況)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일.

*씨끼시마 : 당시의 담배 이름.

1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표현을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만전시키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20.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청에서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 ② 봉구 어머니는 간평을 나온 보광사 사람들에게 분개하고 있다.
- ③ 고 서방은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소작료를 내고 있다.
- ④ 조합의 이사와 고 서방은 이전에 이미 만남적이 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소작료와 차압에 항의하기 위해 보광사로 떠나고 있다.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평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 ② ㉡: 농민들이 보광사에 바쳐야 하는 소작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③ ㉢: 농민들은 팻말을 읽을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 ④ ㉣: 도망간 고 서방에 대해 마을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 ⑤ ㉤: 보광사로 향하는 농민들에 대한 아낙네들의 걱정이 드러나 있다.

22. [야학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이 간평을 하는 공간이다.
- ② 간평원들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공간이다.
- ③ 마을 사람들의 울분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④ 남정들과 아낙네들이 대립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⑤ 마을 사람들이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는 공간이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제 강점기에 소설가들은 일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소설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가뭄은 재난 중 특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난이라는 특징 때문에 일제가 조선에게 자행하는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인 폭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사하촌」은 일제 강점기 절 소유의 농토를 소작하며 사는 농민들의 궁핍한 삶과 친일파 승려들의 가혹한 수탈을 고발하고 있다. 보광사 중들은 가뭄으로 인한 흉년에도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강요하는 등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러한 수탈로 인해 결국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저항을 택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소작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 ①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이 일제가 아닌 보광사 중들이기 이유는 일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어 우회한 것이겠군.
- ② 「사하촌」에서 가뭄이 일제의 폭력을 상징한다면, 「실지조사」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군.
- ③ 「여기저기에, 그에 입도차압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에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해마다 이게 무슨 것들이요?」에서 지속적인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에서 농민들이 보광사 중들에게 저항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워하나이다

<제1수>

만균(萬鈞)*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 데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白玉) 쌓인 데 돌 하나 같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뉘셔 논들 어

떠리

<제4수>

- 박인로, 「조홍시가」 -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중국 삼국 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술이
준 굴(유자)을 품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

*만균: 균은 무게의 단위로, 만균은 쇳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함.

*학발쌍친: 학의 깃털같이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

*군봉: 봉황의 무리. 여기서 봉황은 부모를 뜻함.

(나)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웅가 강가
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
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향가 댕가 하기에 장가 가
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나가 된다

강가 냥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
에는

㉠한사코 ㅁ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밭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 이대흠, 「동그라미」 -

(다)

생부 생모 그 은혜는 하늘 같이 높으면
고이 키운 자식들 중 효자효부 드물더라
시집오는 며느리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자식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1수>

개가 아파 누우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부모 병이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부모님은 열자식을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내버리네

<제4수>

자식위해 많은 돈을 물쓰듯이 쓰건만은
부모위해 한푼 돈은 아까워서 못쓰도다
처자식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갖건만은
늙은부모 위해서는 외출한번 아니한다

<제5수>

그대몸이 소중하면 부모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부모를 잘섬겨라
죽은후에 후회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받고 내한만큼 효도받네

<제6수>

- 작자미상, 「권효가」 -

2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제1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3수>에서는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삶의 가치를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하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다.
- ② ㉡: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에서 이어진 어머니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⑤ ㉣: 부모보다도 가족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효라는 개념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예로부터 자식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의무이다. 조선시대에는 효를 국가 통치(統治)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로 삼았으며, 효는 국가, 사회, 가족을 통합하고 유지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질적으로는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주의적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점점 주위사람이나 부모, 형제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

- ① (가)의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만균을 늘여 내어’에서 조선 후기 근대화를 통해 물질적으로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의 ‘열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내버리’에서 조선 후기 효가 사회와 가족을 통합하는 기능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그대몸이 소중하면 부모은덕 생각하고’에서 조선 후기 만연한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효를 다시 국가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더디 늙게 하리라’와 (다)의 ‘살아생전 효도하면’에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니 간 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①**“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②**“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③**“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④**“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A]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찼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

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낚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

[B] 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2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과 부인은 숙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한다.
- ② 행인은 물에 빠진 숙향을 도와준다.
- ③ 부인은 표진강에서 사향이 훔쳐간 금봉차와 옥장도를 찾는다.
- ④ 여동빈 선생은 물에 빠진 숙향을 도와주기 위해 용녀와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를 보냈다.
- ⑤ 용녀는 과거 승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숙향을 구해준다.

28. 윗글의 흐름에 따라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한 것은?

- ① ㉠과 ㉡ 모두 숙향을 걱정하며 하는 말이다.
- ② ㉠에서 부인은 숙향을 믿고 있지만 ㉡에서 사향은 숙향을 의심한다.
- ③ ㉠에서 부인은 숙향을 지켜주고 있지만 ㉡에서 사향은 숙향을 집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
- ④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으로 이어진다.
- ⑤ ㉠과 ㉡ 모두 다가올 위험을 암시하고 있다.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반면 [B]에서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 ② [A]에서는 현재의 사건이 진행되는 반면 [B]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나타난다.
- ③ [A]에서는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반면 [B]에서는 그 인물들의 갈등이 해소된다.
- ④ [B]에서 숙향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B]에서는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반면 [A]에서는 현실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30. ㉠~㉣ 중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드러난 표현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 ② ㉠, ㉡ ③ ㉠, ㉢
- ④ ㉠, ㉣ ⑤ ㉡, ㉠, ㉣

3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숙향전」의 사향은 일반적인 노비들의 행위와 구별된다. 사향은 승상 댁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영향력 있는 노비로,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일반 노비와는 다른 지위에 있었다. 사향은 상전의 사주 없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하고 주인공 숙향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는 억눌렸던 욕망의 발현이 억압된 신분제도의 폐해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소설 속의 노비와는 달리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에서 구분된다.

- ① 사향이 부인 몰래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숙향의 방에 놓는 것은 주체적으로 행동한 결과겠군.
- ②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에서 부인이 사향을 말만 믿고 숙향을 문책하는 것으로 볼 때, 집안에서 사향이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는 사향은 일반 노비와는 다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군.
- ④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에서 시녀는 사향처럼 평범한 노비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겠군.
- ⑤ 숙향이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떠나는 것은 개인의 욕망으로 인하여 나타난 신분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텅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송수권, 「나팔꽃」 -

(나)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광재구, 「새벽 편지」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중심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화자의 시선이 점점 가까운 곳으로 향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나)는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사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나)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지만, ㉡은 화자를 반성하게 한다.
- ② ㉠은 화자에게 상실감을 주며,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준다.
- ③ ㉠과 ㉡에서 모두 화자는 자연물과 소통하고 있다.
- ④ ㉠은 화자가 이미 경험했지만 ㉡은 화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
- ⑤ ㉠에서 화자의 고통은 심화되는 반면 ㉡에서 화자의 고통은 해소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예술적 존재로서의 시에서 시간은 고유한 시간 질서를 형성하고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미적 작동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시의 시간은 현실과 관련된 시간의 성격, 즉 시간성을 갖게 된다. (가)의 화자는 자신과 달리 아침마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나팔꽃을 보며 현실에서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며 세상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아침’마다 나팔꽃을 확인하는 이유는 하루의 시작이라는 아침의 실제 의미와 관계가 있겠군.
- ② (가)에서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에서 화자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나팔꽃이 ‘아침’에 ‘은은한 종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밤 사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뜻이겠군.
- ④ (나)에서 화자가 굳이 새벽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 없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의 ‘반짝이는 별’은 새벽에 편지를 쓰는 화자의 모습에 고유한 시간 질서를 부여하는 군.



iBex Study